

르 꼬르뷔지에와 建築創造의 力學¹⁾ (1)

Le Corbusier and The Mechanism of Creation in the Architectural Works

李英哲 / 인하대학교 강사
by Lee Young-Chul

1. 意識의 문제

머릿말

순수예술활동과 마찬가지로 “조형예술로서의 건축행위” 역시 조형성(구조니 기능 등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된 상태에서의 부가적 개념으로서의 조형성)이라는 명확하고 외재적인 표상행위를 위한 기법 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축행위 또한 건축가 자신의 어떤 지적감수성의 표현을 위한 의지적 행위이며, 건축작품은 건축가의 어떤 정신의 반영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조형활동을 통하여 건축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재적인 표현체계와 그 체계를 구축하는 초석인 정신적 세계의 가치를 간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건축비평의 세계에서 표출된 건축조형이라는 무대의 뒷편에 감춰진 개개의 건축가 고유의 지적감수성이나 정신적 차원을 왜소시키면서 집단적 의지의 개념으로서의 “예술의지(Kunstwollen)²⁾나 “시대정신(Zeitgeist)” 속에 종속시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건축행위는 한 사회의 집단적인 예술의지나 시대정신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건축가 개인의 지적 감수성의 표현을 위한 의지이다. 말하자면, 건축가의 내부에서 분출하는 깊은 감수성은 그의 지적능력 속에서 순화되어 지적감수성으로 융해되며, 그러한 지적감수성이 정신성 속에서 승화되어 조형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투영될 때 건축은 예술적 차원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처럼 건축작품은 단순히 건축가의 조형기법만의 산물이 아니라 건축가 개개인의 고유한 정신의 결과이며, 건축가 자신의 정신상의 표명행위이다.

건축행위와 정신적 차원의 관계라는 이 문제에 대한 재인식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하이테크·해체주의 등 다양한 ism이라는 유행의 굴레에서 방황하는 우리나라의 건축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는 건축형식이라는 외재적상황에서의 방향은 건축가 자신들의 내적인 혼돈이나 어떠한 근원적인 것에 대한 무장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건축과 정신의 관계는 그리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리라. 단지 잠시나마 잊었을 뿐이라 하겠다. “인간이 신의 모습을 창조한 것처럼, 인간이 항상 보다 더 고도한 인간정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면 건축은 바로 그러한 고도의 인간정신의 산물이다.”라고 말한 Wright의 *Testament*의 한 구절을 되새겨 보자.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High tech의 원류인 Mies마저 “건축은 더할나위 없는 정신적 투쟁의 장소이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溫故而知新을 되새겨보면!

그것은 “나는 작품을 창작할 때마다, 꼬르뷔³⁾였다면 어떻게 계획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나의 모든 작품들은 그에게 바쳐진 것이다. 그가 아니라면, 또 다른 누구에게 나의 작품을 바칠 수 있을까?”라는 Louis Kahn의 말로서 충분하리라.

“예술작품의 근원은 예술가이며, 예술가의 근원은



르 꼬르뷔지에의 자화상 (사진1)

AUTO PORTRAIT

1) 본 考는 필자의 프랑스 Grenoble 건축학교의 최종 학위과정인 CEAA의 “건축歷史연구직전공”학위 논문인 “예술작품으로서의 건축가인 르 꼬르뷔지에 (Le Corbusier ou l'Architecte comme oeuvre d'art)” (1992.7)에서 발췌, 보충 및 재구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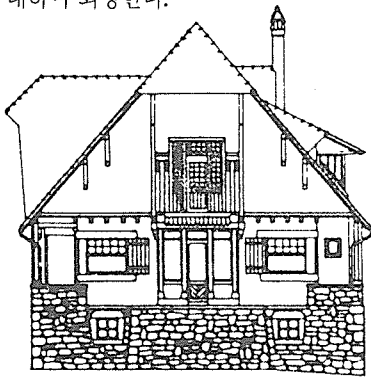
2) “예술의지” 또는 “형태의지”라고도 불리우는 Kunstwollen은 A.Riegl(1858-1905)이 *Stilfragen*(1893)에서 집단적사상과 예술양식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 예술가의 개인적 예술의지의 차원으로서의 “예술의지”의 개념을 Panofsky도 그의 小考인 “Le concept du Kunstwollen”(1920)에서 언급하고 있다.

3) Corbu는 Le Corbusier(1887-1965)의 예칭

예술작품이다⁴⁾라고 말하듯이, 예술작품의 창작이 불가능한 예술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예술창조의 원천인 예술가의 사상이나 그리고 또한 예술가속에 내재하는 “어떠한 창조적잠재력”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본고는 지금까지 많은 건축비평가들이 간과해왔던 “창조적잠재력”에 대한 試論으로서 건축의 행위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며, “왜”, 그리고 “어떻게”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를 Le Corbusier의 내재적인 차원에서부터 출발 再考해보자는 “비평으로서의 역사”⁵⁾의 한 작업이다.

자기비평

“17세에 난 편견이 없는 한 인간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으며, 그는 나에게 자신의 주택건축을 의뢰하였다. 18~19세 사이에 난 그 주택을 정성들여 건축하였다. 감동적이었다! 아마도 이 주택(사진2)은 끔찍하였겠지만...”⁶⁾ 이렇게 Le Corbusier는 자신의 첫작품에 대하여 회상한다.



Villa Fallet à La Chaux-de-Fonds, 1905.

르 꼬르뷔지에의 첫 작품인 FALLET주택 (1905-1908) (사진2)

“감동적이었다!” 건축의 목적이 “감동을 주기 위한 것”⁷⁾이라고 말하지만 건축가에 있어서의 크나큰 감동은 창작행위 그 자체이리라. 그러므로 Le Corbusier에게 있어서 건축창조는 “이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감수성의 실상”⁸⁾이라고 말한다. 즉, 이성이나 지적인 측면은 건축을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승화된 차원으로 고양시키는 데 필연적인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할 뿐 창조의 근원은 우선 깊은 감수성에서 나오는 감동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깊은 감수성에서 나오는 “깊은감동, 그것은 의식”⁹⁾의 차원으로 수렴되며, “정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식이 말하는 것”¹⁰⁾이라는 H. BERGSON의 말처럼 의식은 또다시 우리의 정신세계의 형성으로 연결된다. 의식의 적극적인 상태는 “자각”이며, 이는 인간이 물리적인 외부세계의 현상과 직면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깨어나는 상태이다.

첫 작품을 완성하였다는 깊은 감동과 함께 “끔찍하였겠지만”이라는 고백이 건축행위가 무엇인가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Le Corbusier의 진지한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다.

“난 이미 현인들의 경교에 거역하는 모험을 감수하였다... 건축현장에서 난 벽돌 하나를 손에 들고 그의 무게를 어렵게 보았다. 그의 무게는 날 겁에 질리게 하였고, 난 그자리에서 화석처럼 얼어 붙었다.”¹¹⁾ 깊은 감동과 교차되는 의식의 차원에서의 두려움! 그것은, 건축에 관한 충분한 교육적 경력도 없이 당돌하게 “Sisyphes의 聖스러운 행위”¹²⁾를 모방하였다는 자신의 경솔함에 대한 자책이었으리라. Le Corbusier가 화석화 되었던 것은 벽돌의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벽돌의 상징적인 무게 때문이었으리라. 여기서의 “상징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벽돌이라는 건축의 구성요소를 통하여 Le Corbusier가 자문하기 시작하는 “건축의 진실이란 개념”이라 하겠다. 이렇게 Le Corbusier는 건축에 대하여 자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단계는 건축가로서의 “자기비평(Auto-critique)”에서부터 시작된다.

말하자면, 분석·재해석·구성·수정·재구성이란 단계를 요하는 건축창조의 과정에서 비평의식 또는 자기비평의식이란 채거름은 중요한 행위라 하겠다.

당연히 이러한 자기비평의식은 평생동안 Le Corbusier의 창조적 잠재력과 함께 자리한다:

“매일, 난 바보같은 영혼속에서 잠을 깬다. 그러나 저녁이면 난 행복한 마음으로 잠을 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난 내 자신이 보다 더 바보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¹³⁾

일종의 역설! 그러나 의미심장한 어구가 아닐 수 없다. 항상 구상하고, 새로운 조형언어를 찾고, 그리고 구사해도 참된 창작행위라는 깊은 심연의 한계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점에 절망하고 그리고 또다시 노력하는 자신과 오히려 그러한 무한성 때문에 추구해야 할 무엇이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에서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Le Corbusier의 이러한 사고가 그의 창작행위상에서의 생명력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완벽으로 향하는 길은 새로움을 향한 끊임없는 정신적인 투쟁의 과정속에 연속이지 않을까? Le Corbusier는 자기를 추종하는 後學들에게 자신의 사상마저도 부정하라고 선언한다:

“...학파들을 다파하라(Corbu의 학파는 물론 Vignole의 고전학파도-계발 간청합니다!...)”¹⁴⁾ 이처럼 창작의 행위란 자기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역이라는 어휘속에 요약되지 않을까?

4) M.Heidegger, “L'origine de l'oeuvre d'art” in “Chemins qui ne menent nulle part”, Gallimard, Paris, 1962(1949), p. 13.

5) “비평으로서의 역사”란 개념에 관해선, Manfredo Tafuri, “History of World Architecture: Modern Architecture”, Harry N. Abrams, New York, 1979. 의 Nervi의 서문을 참조.

6) Le Corbusier, “L'oeuvre complete” 1910-1929, p. 10. Villa Fallet는 1905년에 계획되었고, 1906-1907년 사이에 Rene Chapallaz와 함께 건설하였다.

7) “건축은, 다음에 지지않은 재료로서, 감동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 Cres et Cie, Paris, 1923, p. 121.

8) Le Corbusier, “Unite” in “L'Architecture d'Aujourd'hui, no Special” “Le Corbusier”, 1948, p. 55.

9) Ibid. p. 55.

10) H. Bergson, “L'Energie Spirituelle”, Quadrige/PUF, Paris, 1930(1919), p. 4.

11) Villa Fallet에 대한 77세 때의 회상. Le Corbusier, “Mise au Point”, Archigraphie, Geneve, 1966, pp. 15-17.

12) 산 정상으로 끊임없이 돌을 굴러 올리도록 숙명지위진 신화상의 Sisyphes은 Acrocorinthe를 건설한 건축가이기도 하다.

13) Le Corbusier의 어록중에서.

14) 1936년 Johannesburg의 현대건축가모임에 보낸 Le Corbusier의 편지.

비평의식

“(창조의)열쇠는 주시하는 것이다...

주시하고/관찰하고/또 다시

보고/상상하고/구상하고/창조한다.”이렇게 Le Corbusier는 건축창조의 과정을 역설한다. 창조의 기본은 우선 보고, 관찰하는 것이며, 이는 시선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생기발랄하고, 예리한 시선은 우리의 의식이자 정신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외부의 현상이나 자신의 내면으로 회의적이 아닌 “긍정적인 순수부정성”의 관점에서 투시하는 살아있는 시선, 그것은 항상 진실의 의미를 찾는 비평의 시각이며, 여기에서 비평의식은 짝트리 시작한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비평의식은 이미 창조성의 일부이다.

Villa Fallet의 건설이후, 지적경험의 필연성에 대한 자각속에서 Le Corbusier는 건축수업을 위한 스승을 찾아서 유럽을 방황한다. 그러나, “진실된 건축”을 배우고자 하는 그의 예리한 시각속에서는, 당시의 대가들의 작품마저도 그를 실망시킨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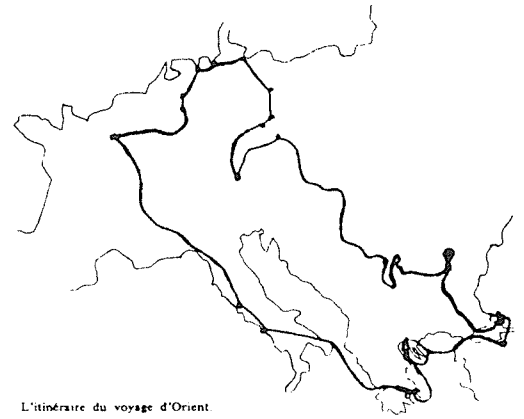
“...어쨌든 모두가 아주 흥미롭군요. 많은 진실성이 내포된 듯 하지만, 대단한 뻔뻔스러움 뿐이며, 창조성들은 전혀 없어요... 아카데미즘의 지도자인 (Otto)Wagner, 그의 차가운 양식이나, 화려한 결백성속이 빈 걸만 번드르한 상점 같답니다...”¹⁵⁾

Le Corbusier의 비평적 시각에선 당시 혁신적인 양식인 오스트리아의 Jugendstil마저도 현대건축의 진실된 모습이 아닌 허구의 건축으로 보였다. 허구/진실의 변증법 관계에서는 베를린의 대가도 그에겐 마찬가지로 :

“...Behrens 사무실에서도 순수한 건축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외관에만 신경 쓴답니다. 구조에만 신경쓰는 이단자들 천지고요. 현대건축에 관하여는 무관심 하답니다... 가슴스러운 분위기뿐인 이곳에서의 내 생활이 혐오스럽습니다. 바보같은 내 생활이고요...”¹⁶⁾

Behrens는 철골이란 재료사용으로서 당시에 혁신적인 건축가였으며, Mies나 Gropius는 Behrens를 현대적인 건축감각의 소유자로 인정하였으나 Le Corbusier는 그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그것은 현대적인 재료 사용이라는 이유 이외에는, Behrens의 건축에서 현대적인 맥락이 결핍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의 진실한 건축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재료의 구조적인 표현이나 인간을 현혹시키는 외관의 형식적인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구조·형태 및 공간의 통합된 건축을 통하여 당대의 감수성을 반영하며 아울러 건축가 개인의 어떤 “내재적인 의미”를 표출하는 건축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역시, 한편으로는 그가 존경하는, Perret의 사무실에서도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3년간이라는 현대건축의 스승을 찾기위한 긴방황과, 그리고 그 방황중에 지속 하였던 건축지식의 축적을



“동방여행”(1911년)의 여정표 (사진3)

L'itinéraire du voyage d'Orient

위한 도서관에서의 독학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1911년 Le Corbusier는 동방여행(Le Voyage d'Orient)이라는 새로운 유랑에 들어간다. (사진3) 목적은, 시간과 공간의 생생한 증인들을 통하여, 건축의 진실에 대한 확인과 배움이었다. 여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때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수성과 의식의 지평을 확장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24살이라는 젊은 Le Corbusier에게 가장 중요한 여행장비는 “신선한 감동들을 간직하기 위한 감동하는 능력과 생기있고 예리한 시각”¹⁷⁾과 조형적인 감흥을 기록할 수 있는 스케치북이었다. (사진4)

A Athènes, vu par son ami Auguste Klipstein.



“동방여행”중 아테네에서 그의 친구 크립스타인이 스케치한 르 꼬르뷔지에 (사진4)

“눈(眼)이 명확하게 볼 때 비로소 정신이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그의 말처럼 예술가의 비평의 시각은 그의 작가정신을 형성하는 원천이 아닐까? 진실된 美에 동요될 수 있는 순수한 감수성과 거뒀된 美를 질책할 수 있는 비평적 시각을 동반한 이 여행에서 그는 그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그의 영혼과 정신속에 축적하며 추후의 건축창조행위에 반향한다.

동방/서구의 비교개념에서부터 시작, 민속예술품/공업예술품; 토속문화/현대문명; 聖스러운·범속함, 이라는 변증법적 접근으로 일관되는 그의 “동방여행”은 창조하는 인간으로서의 예술적 도덕성이란 새로운 문제를 그에게 제기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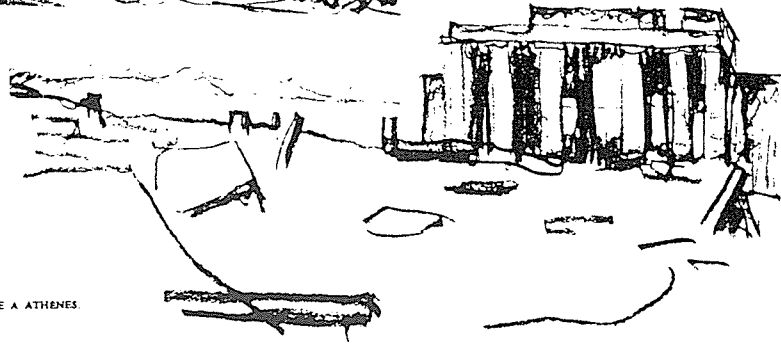
“친구여 소위 문명화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 유럽인들이 더 야만인이지 않을까.”¹⁸⁾

15) Le Corbusier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1908.2.26.일에 고향의 예술학교시절의 은사인 L'Eplattenier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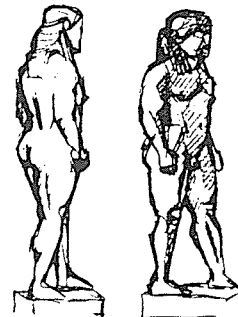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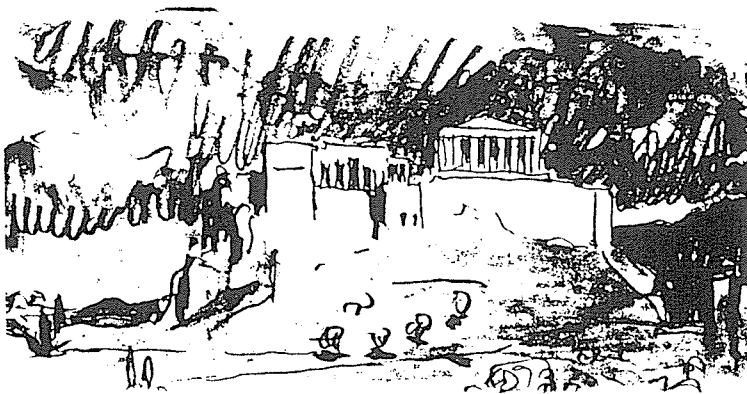
16) 베를린에서 1911.1.4.일에 은사인 L'Eplattenier에게 보낸 편지.

17) Le Corbusier, “Le Voyage d'Orient”, Parenthese, 1966. p.9

18) Ibid, p.22.



L'ACROPOLE A ATHENES



APOLLON A DELPHES

“동방여행”의 마지막 여정이었던 그리스 아테네의 Acropolis(아크로폴리스)에서 한 르 꼬르뷔지에의 스케치 (사진5)

“현대라는 장벽에서 완전히 실패한 당신들 서구인들은 영혼없는 기술자들의 속물주의에 상처받은 사람들로서 선각자로서의 우선권마저 박탈되었는가!”¹⁹⁾

Le Corbusier의 통찰속에서의 야만은 단순히 문명의 차원에서의 우월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술가의 정신이 결핍되고 기술성에만 의존된 산업사회의 산물들이야말로 가련한 문명화된 야만이라 보았다.

결국, “동방여행”의 마지막 여정인 Acropolis의 Parthenon(사진5)을 보고난 후에 Le Corbusier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왜 우리의 진보는 추악하기만 할까?”

예술적인 미의 개념에 대한 한계가 가능할까? 미의 창조는 문명화된 예술가의 특권이라 할 수 있을까? 문명화되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깊은 예술적인 정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고한 미를 발산하는 예술작품의 창조가 불가능할까? 匠人에 의한 문화적 차원에서의 미적가치와 예술가에 의한 문명적 차원에서의 미적가치 사이에서 어떠한 경계의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여도, 문화적인 차원의 예술이 때로는 문명적차원의 예술작품들 속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미적이고 윤리적인 감각과 그들만의 자율적이고도 평온한 조형언어로써 우리에게 느끼게하는 감동의 심오한 내재적 가치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문명이란 단어와 문화란 단어는 동의어라 할 수 없다. 의미론적으로 볼 때, 문명이 기술성의 차원이라면 문화는 오히려 정신성의 차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1942년 파리의 국립미술학교의 건축과 학생들과의 대답에서 Le Corbusier는 “건축은 어디에 있는가? 역사상의 그 어떤 시대나 사회도 물질적인 장치와 정신적인 형태의 근원적인 자연적인 요소들 사이의 연결이 마비되거나 분쇄되어, 현재의 우리 사회 만큼 막막하지는 않았으리라. 목적과 수단사이의 접촉의 단절, 그리고 행동방식의 부재”라고 당시의 건축사회의 모순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즉 건축창조의 외적인 형식적 차원과 내재적인 도덕적 차원사이의 괴리를 Le Corbusier는 젊은 학생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Le Corbusier의 건축개념으로서의 내적인

19) Ibid, p40.

충실성과 유착되지 않는 건축외부만의 형식적인 기교에 의한 조형성은 거짓이라 보았던 것이다.

진실한 건축, 그리고 건축행위에 대한 진실에 대한 끝없는 물음과 그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Le Corbusier의 끝없는 노력 및 헌신은 평생을 통하여 그의 작품에 새로운 신선감으로 반영되며 그의 건축에 대한 직업의식 또한 단순한 직업인의 차원을 넘어선 건축인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준다.

작가정신

“오늘로서 Vienne이나 Darmstadt 같은 독일의 두학과에 버금가는 성공을 해보겠다는 저의 초라하고 유치한 꿈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건축의 진실 그 자체를 위하여 투쟁하렵니다. 진실이란 어휘가 저를 박해할 것입니다—틀림없어요. 저의 현재의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직면이나 준비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대중들 속에서 환호를 덜 받을수도... 그러나 저는, 저는—진지하고—그리고 창조하는 삶 속에서 행복할 것입니다.”²⁰⁾ 이렇게 건축가로서의 사회적인 성공이나 건축에 대한 조급한 완성이 목표가 아닌 건축의 진실을 구축해 보겠다는 순수한 이상과 함께 젊은 Le Corbusier는 건축가의 길을 시작하였다.

“존재 그 자체는 끊임없는 고통이다... 한편으로, 순수한 표출속에서 또는 예술작품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온갖 고통을 초월하려는 행위이다”²¹⁾라고 Schopenhauer는 말하고 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고통에 숙명지워 졌다면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당연한 인간적인 행동이라 하겠다. 물론 고통으로 간주되는 차원도 인간의 정신성에 따라 서로 다르며 그를 극복하려는 방법도 또한 다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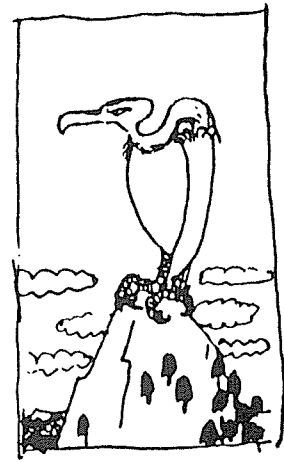
Le Corbusier에게 있어서의 고통은 물질적이거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인 차원의 고통이었다. 말하자면, 물질이나 경제적인 결핍에서 오는 고통은 그에겐 그의 의지력으로 극복할만한 것이었다 말할 수 있겠다. 1908년의 초기의 파리생활 중, 극심한 재정적 궁핍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착은 정신적인 양식의 궁핍에 더욱 피로워 하였다.

“제 자신의 의지이상의 더욱 높은 이상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에 거역하는 자신의 기술로 인한 고통과 환멸의 나날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사고 능력들이 날 배신하고 있습니다.”²²⁾

이처럼 그의 고통은 자신의 건축지식의 결핍에서 극복하려는 의지와 건축의 이상적 개념을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이러한 고통이 Schopenhauer의 개념처럼 그를 더욱 건축의 이상에 대한 지향으로 추진시키기도 하였지만(사진6), 또한 그러한 고통을 그의 Nietzsche적 초인적인 정신적 의지와 그 자신의 도덕의식이나 자신에 대한 확고한

르 꼬르뷔지에가 PARIS 생활중 자기 부모에게 보낸 (1909년) 크리스마스 카드: 카드의 내용 → 생활의 가난이 인간을 만든다. 가난에 당당하자. 위대한 곤돌의 영혼속에 자신을 불태우며 살자. (사진6)

1909년



La misère de vivre
faite homme!
et le dédain de la misère
de vivre
Incarné en
l'âme de
GRAND CONDOR

신념으로 극복해 나아갔다.

“지고한 개념을 향하여 앞으로!”²³⁾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고통은 건축가로서 성공한 이후에도 계속 그를 따라 다닌다. 이러한 고통에 의한 개인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상의 수행을 위하여 그의 초인적인 의지와 엄격한 규율로써 극복한 과정을 1932.6.30자의 그의 일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난 길잃은 강아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강철과 같은 규율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있는 내 자신도 11개월이 지나자 쓰러져 버렸다.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계속해야할 가치가 있을까? 그러나 나는 예술과 나의 임무라는 정열이 있다... 난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정상적인 생활을 모두 물어버렸다. 나의 생활은 비정상적이지만, 그러나 건전하고 창조적이다.”

비정상적인 생활 그것은 “방화자의 형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이상을 가르치려 하기 때문이었다. 순수주의라는 건축개념의 “전도사”로서의 그의 인생은 때때로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만 하기도 하였다. 그를 시기하는 비평가들은 그를 영혼없는 기술자로서 회화와 건축을 동시에 하는 이단자로서 그리고 그를 공산주의자나 파시스트로 몰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집착은 돈을 벌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높은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직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창조하는 열정 하나였다.

“우리는 자기자신과 자신의 의식을 위하여 고고한 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다른 가능성으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재물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나의 전 인생은

20) Le Corbusier가 1908.11.22일에 은사인 L'Eplattenier에게 보낸 편지

21) Schopenhauer, “Le Monde comme Volonté et comme Representation”, PUF, Paris, 1958(1954), p. 341.

22) 1908.7.3일에 L'Eplattenier에게 보낸 편지.

23) 1908.11.25일에 L'Eplattenier에게 보낸 편지의 이 구절에서, Nietzsche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애독자였던, Le Corbusier의 니체적인 어조를 느낄 수 있다.

창조행위에만 집착하였다. 그것이 내 자신의 선택이었다.”²⁴⁾

그가 선택했던 인간적인 행복은 조형적인 표출의 의지의 기쁨과, 인간을 행복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인간에 대한 깊은 자애심없이 어떻게 건축을 창조할 수 있을까?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이기적인 의지의 인간들이 인간성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 수 있지 않은가?

Le Corbusier는 건축작품의 “창조는 개인적 정열의 진지한 거울”²⁵⁾이라고 말한다. 창조라는, 때로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건축가에게 의지라든가 열정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자인 건축가는 “행위의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상처럼 전달 가능한 수단은 없다”라는 그의 “정신적인 유언장”에서 Le Corbusier는 다음과 같이 그의 창조적인 인생을 고백하고 있다.

“77세의 지금, 나의 정신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겸손, 완벽성 및 정밀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예술창조의 오직 유일한 조건, 그것은 규칙성, 겸손, 지속성 및 불굴의 인내이다.”²⁶⁾

근원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에 대한 정의를 행위 그 자체로 볼 때, “사고하다”라든지 “의도하다”라는 그것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의 가치부여에 커다란 의의가 없지 않을까. 사고의 인간이자 무엇보다도 행위의 인간이었던 Le Corbusier에게 있어서의 “행하다”라는 어휘는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던 좌우명이었다: “100세가 되시던 올해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님께선 : Ce que tu fais, fais-le!라고 항상 말씀하셨다.”²⁷⁾말하자면,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을 시작했으면, 철저히 그 일에 자신을 바치며,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느끼는 그대로 행동하되 하고자 하는 갈망이나 신념에 따라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뜻이다. 이러한 불구의 투지와 그의 정열은 “일한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숨을 쉬는 것이다”²⁸⁾라고까지 말한다.

인간에게 완벽은 이미 가능할 수 없다고 해도 예술창조의 길은 완벽을 향한 끊임없는 과정이며, Le Corbusier는 그러한 길을 평생 추구해왔던 “완벽주의자”였다. 어느날 그는 친구인 조각가, Savina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친구여, 예술가의 기쁨은 무릎에 힘이 빠지고, 지치고, 사기가 꺾여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야.”²⁹⁾Le Corbusier, 그는 “건축예술창조”라는 전장에서의 한 “투사”이었으며, 또한 “가슴과 정신을 지닌 투사”였다.

예술창조의 행위는 외부의 현상 및 자기 자신과 대적해야 하는 고독한 투쟁이다. 건축창조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Le Corbusier에 있어서의

건축가란 천직은 현실적으로는 그에게 배운망덕한 직업이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점은 그에게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건축가라는 직업, 그 자체를 Le Corbusier는 Nietzsche의 “짜라투스트라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등장하는 곡예사로 비유한다 :

곡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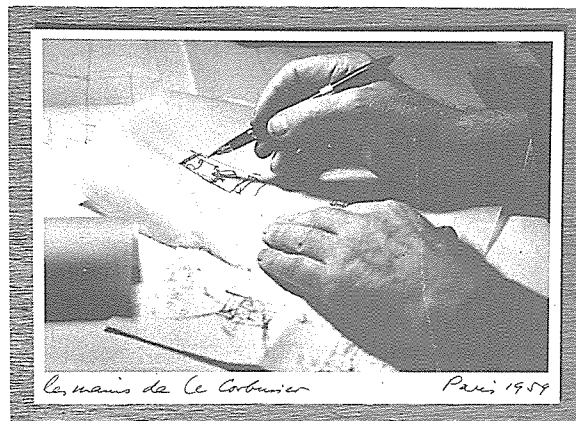
“곡예사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바쳐 하나의 행위에 헌신한다
끝없는 죽음의 위험이 따르는 그행위 속에서,
극한의, 난해한 동작을
엄격성과, 정확성과, 정밀성을 가지고
그는 비범한 동작을 연출한다...그러다가
목이 부러지고, 뼈가 바스러지며, 전신이 박살나서
공연장을 떠난다.
그 누구도 그를 책임지지는 않는다
그 누구도 그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어떤 비범한 세계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줄타기의 세계에 입문하였다.
결과는 : 타인들은 이렇게 자문한다 ;
왜 그러한 위험한 것을 하지, 건방지게도, 그는
비정상적이어야 ; 우리를 무섭게 해 ;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
우리를 귀찮게 군다니까 !

Le Corbusier

Le Corbusier에게 있어서의 건축행위는 더할나위 없는 정신적 행위이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한 그것은 :

“건축은 정신의 상태이지, 직업이 아니다.”³⁰⁾

예술작품은 단지 숙련된 손이나 기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사랑과 정신의 손(사진 7)에 의하여 창조되는 것이더라는 개념이 Le Corbusier의 전 생애를 통한 건축철학이었다.



르 꼬르 뷔지에의 사랑과 정신의 손 (사진 7)

24) Le Corbusier, “Mis eau Point”, Archigraphie.Geneve.1966. p. 15.
25) Le Corbusier, “Art decoratif d'aujourd'hui”, Vincent.Paris.1925. p. 120.
26) Le Corbusier, “Oeuvre complete-les demieres Oeuvres”,p. 168.
27) 1960.9.5.의 Le Corbusier의 개인기록.
28) Ibid.
29) Le Corbusier가 1950.12.15일에 Savina에게 보낸 편지.
30) 1936년 Johannesburg의 현대건축가모임에 보낸 편지.